

특집
미래의대학

미래대학의 국제화 *

김동훈 | 연세대학교 국제처장 | 경영학과 교수

사회를 이끌 지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대학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적합한 대학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변화는 필요 되는 인재상과 경쟁구도를 계속해서 변화시킨다. 특히 최근 가속화된 국제화는 국가간 경계를 무너뜨려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쟁구도를 제시했다. 그에 따라 세계의 대학들은 학생 개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여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과 같은 대학교 순위 전문 기관에서는 '국제화 지수'를 평가 기준 중 하나로 할 만큼 국제화는 대학 자체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필수조건이 되었다.

현재 세계 대학들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개혁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교육 과정을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의 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을 융합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현재 대학의 학문영역 체계는 대개 약 100년 전 서양에서 확립된 분화된 학문영역 체계이다. 이는 독립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거나, 인접 학문영역들 간 소통 및 협업 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미래 글로벌 인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하여 글로벌 화에 앞서는 대학에서는 전 시대의 학문적 구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학문영역을 창조적으로 기획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이하 과기대)은 학문 융합을 통해 세계적 명문대가 된 가장 대표적 대학이다. 과기대는 경영과 전자공학을 동시에 전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나노 분야의 교과과정을 자연대의 물리·화학·생물학과와 공대의 기계·전자·토목과를 융합하여 '나노 사이언스 테크 프로그램'로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학과 실험실을 통합하는 등 학문 융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설립된 지 2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홍콩 과기대를 세계 40위대의 명문대로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처럼 학제간 연구를 뛰어 넘어 융합학문 분야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대학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학생들에게 국제적 시각의 강의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우수학자 유치 및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선진대학교육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 40년간 외국인 학생들과 학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현재는 미국대학협의회(AAU)의 61개 회원대학 중 외국인 출신 총장이 이끌고 있는 대학의 수가 11개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은 국제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세계시민 의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실력 있는 인재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폭넓은 해외경험과 국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등 국제적 학생교류의 증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활동이다. 이는 자대 학생들이 세계 우수 대학들을 방문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탐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대학들은 이러한 기회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국제화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의 볼로냐협약과 에라스무스협약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컨소시엄과 협

의회 등은 서로간의 이익과 공동관심 분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APAIE, NAFSA, EAIE와 같은 지역별 국제회의는 지역간 고등교육의 발전과 협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대학들의 노력이다. 이제 국제적인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대학의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대학들 역시 대학 세계화를 향한 리얼리티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격적 시작단계인 지금이야말로 성공적인 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 동안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가장 최적의 시점일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신화의 밑바탕에는 단기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공급처로서 대학의 역할이 존재했다. 한국의 대학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침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국내대학들의 국제화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가장 최우선 적으로 각종 세계대학 평가지표에서 국내 대학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강좌 개설비용 증대 및 우수 외국인 교원 확보는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근래 들어 한국 대학들이 주저해왔던 우수 외국인 교수 영입과 영어강의의 확대는 대학들의 구체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영어강의는 대학평가에 있어 국

제화 지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이 수강을 하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영어강의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비판론이 일면서 심지어 폐지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영어강의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영어강의는 한국 대학들을 더 큰 발전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영어강의는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살펴보았을 때, 영어강의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국내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영어강의 제도 확립해 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 대학들이 가져온 편견과 소극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국가성장산업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들은 유학 대상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지닌 시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동기와 선호도(Needs)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들을 우리 대학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은 유학생 유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략 수행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졸업 후 취업 및 인턴십 기회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힘쓰고, 동서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더 많은 유능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대학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역량, 교육수준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기본 틀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 및 교수·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향상, 세계수준 논문 및 학술지 집필을 위한 외국어 교육 제공, 다양한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해외분교 설치 및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이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동시에 교수·학생비율 조절, 시설확충, 해외석학 및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대학 본연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역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세대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유의하면서 미래의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대학 중 하나로 뻗어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 예로는 인천 국제캠퍼스를 들 수 있겠다. 특히 인천 국제캠퍼스는 학문간의 융합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글로벌리더의 시각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융합공학부는 1,655억 원이 투입되는 '정보기술(IT)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현재 글로벌융합공학부는 학문의 경계를 깨뜨린 '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갖추고 올해 인천 국제캠퍼스에 신규 개설, '한국형 MIT 미디어 랩'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IT

인재 육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 학부의 특징은 다빈치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프로젝트 과목을 강화해 이론 중심의 기존 교육을 탈피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술과 상상력, 미래를 아우르는 TIF(Technology+Imagination+Future)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목을 접함으로써 한 과목만 수강하더라도 기술·인문·예술·디자인 등을 배워 학문 간의 협력 및 융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설립된 인천 국제캠퍼스는 그 목적에 맞게 외국의 우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학위 운영 역시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0년 12월에 미국의 아트스쿨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Arts)와 교류협정 및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캠퍼스에 'Yonsei-CalArts School of Arts(가칭)'을 건립하고 학위과정과 커리큘럼을 공동수립 해 2012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 간의 협력과 연계가 잘 이루어져있는 CalArts과의 협력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문화와 전공 간 융합을 통해 학생 스스로 분야를 골라 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세대학교는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하여 연간 1000여명의 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이 국제 시장

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00여 명의 외국인 학생과, 신촌 캠퍼스에만 3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교수는 연세대학교의 국제화에 대한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이 현재 연세대학교는 글로벌 성장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수 많은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에서의 학위취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국제화를 위한 한국 대학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는 한, 머지 않아 우리의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기대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장벽으로 남아 있던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그리고 전통의 개별적인 차이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고등교육을 통하여 다양성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시너지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국제화된 고등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21세기의 글로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필자소개

김동훈 | 연세대학교 국제처장 | 경영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에서 MBA,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 경영학회, 한국 마케팅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 마

케팅학회 부회장,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국제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마케팅 관리론(2002) 마케팅원론(2010) 등이 있다.